

## 미사의 기원인 최후만찬

미사는 예수께서 수난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신 최후만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. 신약성서에서 명시적으로 최후만찬에 관해 언급하는 부분은 마르 14,22-25; 마태 26,26-29; 루가 22,19-20의 세 공관복음과 사도 바오로의 편지 1고린 11,23-26이며, 흔히 「최후만찬 기사」라고 한다. 그런데 이 만찬 기사들은 역사적인 최후만찬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, 안티오키아 등 초대 교회의 여러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거행되던 성찬식을 대본으로 삼고 여기에 제자들의 해설이나 신학을 첨가한 것이다. 이 가운데 마르코와 마태오, 그리고 고린토서와 루가의 기사들이 서로 비슷하다. 만찬 기사들은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거의 같은 점으로 보아 최후만찬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.

### 1. 날짜 :

최후만찬을 거행한 날짜는 공관복음은 유대 해방절 만찬일로 전하는데, 요한복음에는 그 하루 전날로 되어 있다. 해방절 만찬이란 유대인들이 해마다 초봄인 니산달 14일 밤에 그들의 조상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느님의 도움으로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해방절(파스카) 축제의 첫 행사이자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.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해가 진 직후부터 계산하였기 때문에 니산 달 14일 밤은 이미 니산 달 15일이 된다. 그러한 관습에 따라 교회도 주일과 대축일 행사를 전날 저녁부터 시작한다. 니산 달 15일은 춘분 직후의 첫 보름으로 양력으로 계산하면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온다. 그런데 예수께서 처형당하신 날은 안식일(토요일) 전날인 금요일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복음이 일치하기 때문에

**최후만찬일은 목요일 저녁이었음**을 알 수 있다.

학자들은 그날을 30년 4월 6일로 추산하고 있다. 최후만찬일이 해방절 만찬일과 같은 날이었든 그 전날이었든 해방절 축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음은 틀림없다.

### 2. 환경 :

**만찬 장소**는 예루살렘성 안에 있던 어느 집의 큰 **이층방**이었으며 (마르 14,13-15),

**참석자**는 예수님과 배반자 유다를 포함한 **열두 제자**였는데 (마르 14,17.10),

유대인들의 해방절 만찬 참석자 규정에 알맞은 숫자이다. 만찬 음식으로는 빵과 포도주만 언급될 뿐 해방절 만찬의 주식인 양고기, 쓴 나물 등에 관해서는 말이 없다.

제자들은 당대의 성찬식에 사용되었던 음식만 열거하고 있다. 공관복음의 말대로 그 만찬이 해방절 만찬이었다면 예수께서 손에 드신 빵은 누룩 안든 빵이 있었을 것이다.

이 빵은 에집트의 노예 생활(신명 16,3)과 탈출(출애 34,18)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음식이었다. 포도주는 축제 때에 마시는 음료였지만, 잔치나 회식 때에도 마시곤 하였다.

이 포도주는 약속의 땅에서 누릴 행복(아모 9,13), 생명, 종말의 행복과 위로(이사 25,6; 예레 16,7) 등을 상징하였다.



**"받아 먹어라, 이것은 내 몸이다."**

**"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, 이것은 나의 피다."**

**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."**

천주교 서대문 교회 (2003)